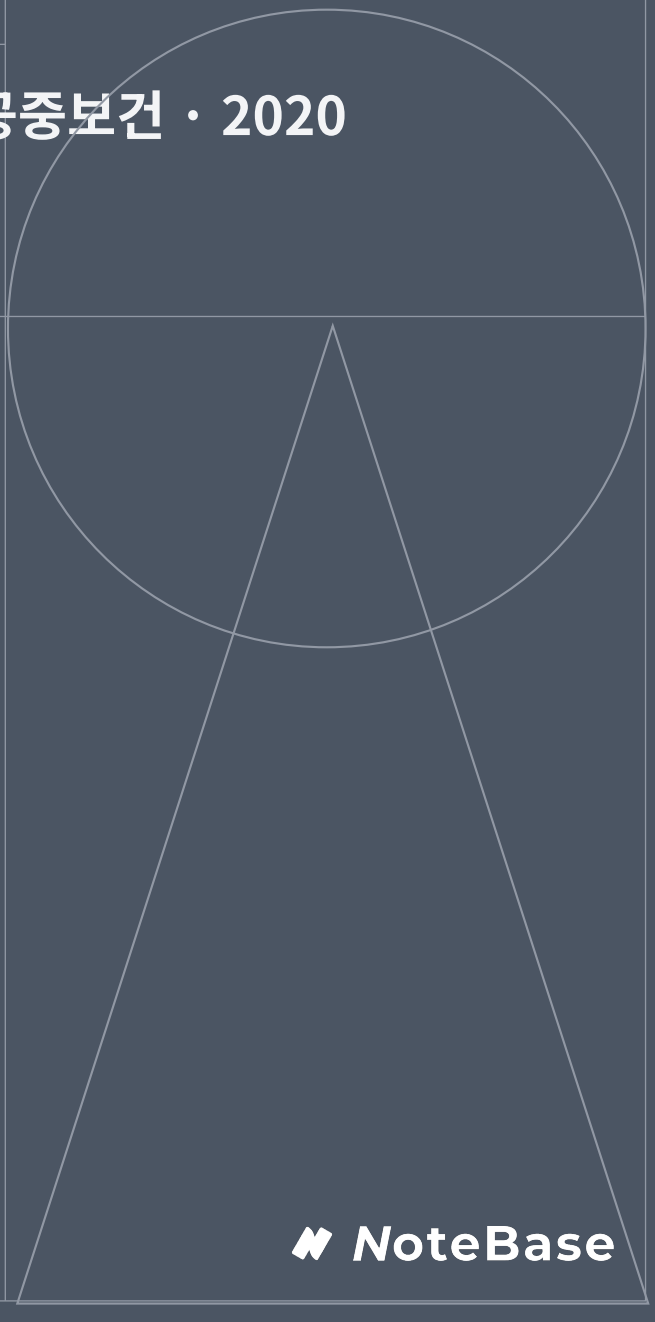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공중보건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공중보건 · 2020

공무원/서울시/9급 경력 · 공중보건 · 2020

1. 윈슬로우(Winslow)가 주장하는 공중보건의 접근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환경위생 관리
   ② 감염병 관리
   ③ 희귀 질병에 대한 보건교육
   ④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의료 및 간호 서비스의 조직화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윈슬로우가 제시한 공중보건의 정의와 그 구체적 접근 방법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윈슬로우는 공중보건을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며 건강과 능률을 증진하는 과학이자 기술로 보았다. 대표적 실천 내용은 환경위생,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의료·간호 서비스의 조직화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환경위생 관리는 생활환경을 위생적으로 개선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활동이므로 윈슬로우의 접근 방법에 해당한다.
② O — 감염병 관리는 지역사회 감염을 통제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활동이므로 윈슬로우의 접근 방법에 해당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희귀 질병에 대한 보건교육'이다. 올바르게는 '개인위생의 원리에 관한 보건교육'이 윈슬로우가 제시한 접근 방법이다.
④ O —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의료 및 간호 서비스의 조직화는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윈슬로우의 접근 방법에 해당한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③은 '질병'과 '보건교육'이라는 공중보건 용어를 결합하여 그럴듯하게 만든 선지이다. 그러나 윈슬로우의 정의에서 보건교육의 대상은 희귀 질병이 아니라 개인위생의 원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윈슬로우 관련 문항은 '환경위생·감염병 관리·개인위생 교육·조기발견 및 예방 서비스의 조직화'를 핵심 항목으로 연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윈슬로우의 핵심은 환경, 감염, 개인위생 교육, 예방 서비스의 조직화이다.

NoteBase

2. <보기 1>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기후요소 중 인간의 체온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온열요소라고 하며, 4대 온열요소로 기온, 기습, ㈎, 복사열이 있다.

<보기 2>

ㄱ. 대류를 통해 열이 전달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ㄴ. 낮에는 태양열을 흡수하여 대지의 과열을 방지한다.
ㄷ. 대기의 온도변화에 따라 생성된 기압차에 의한 바람을 의미한다.
ㄹ. 인체의 방열작용을 촉진시키고 자연환기의 원동력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4대 온열요소 중 기온·기습·복사열과 구별되는 기류의 의미와 작용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온열요소는 인체의 체온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며, 기온·기습·기류·복사열로 구성된다.
기류는 공기의 움직임으로, 기압 차에 의해 생기며 인체의 방열과 자연환기를 촉진한다.
복사열은 매질의 대류 없이 전자기파 형태로 직접 전달되는 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대류 없이 직접 이동하는 복사열의 설명이고, ㄴ도 기류의 설명이 아니므로 빈칸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ㄱ, ㄴ'이며,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② X
ㄷ은 기온 차로 생긴 기압 차에 따른 공기의 움직임, 즉 기류의 설명이지만 ㄱ은 복사열의 설명이다. 틀린 표현은 'ㄱ'이며, 올바르게는 'ㄹ'로 바꾸어 'ㄷ, ㄹ'이 된다.

③ X
ㄷ은 기류의 설명이지만 ㄴ은 낮에 태양열을 흡수하여 지표의 급격한 과열을 완화하는 수분의 열적 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기류의 정의나 작용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ㄴ'이며, 올바르게는 'ㄹ'로 바꾸어 'ㄷ, ㄹ'이 된다.

④ O
ㄷ은 기온 변화로 형성된 기압 차 때문에 생기는 바람을 뜻하고, ㄹ은 공기의 움직임이 인체의 방열을 촉진하고 자연환기의 원동력이 된다는 설명이다. 둘 다 기류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ㄱ의 '대류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동한다'는 표현을 공기의 이동인 기류로 오인하기 쉽다. 이 표현은 복사열의 전달 방식이며, 기류는 바람·기압 차·방열·자연환기와 연결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바람, 기압 차, 공기의 이동, 방열 촉진, 자연환기가 나오면 기류로 판단한다. 대류 없이 열이 직접 전달된다는 표현은 복사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기류는 바람·방열·환기, 복사열은 대류 없이 직접 전달이다.

NoteBase

3. 라론드(M. Lalonde)가 제시하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① 생활습관 ② 환경

③ 유전 ④ 보건의료 서비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라론드의 건강장 개념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네 요인과 그중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라론드는 건강 결정요인을 생활습관, 환경, 인체생물학, 보건의료조직으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개인의 흡연·음주·식습관·운동 등과 관련된 생활습관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본다. 선지의 유전은 인체생물학 요인에, 보건의료 서비스는 보건의료조직 요인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생활습관은 흡연, 음주, 식습관, 운동처럼 개인의 건강행동과 관련된 요인이며, 라론드가 제시한 요인 중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② X — 환경도 건강 결정요인이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아니다. '환경'은 '생활습관'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유전은 라론드의 인체생물학 요인에 포함되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아니다. '유전'은 '생활습관'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 보건의료 서비스도 건강 결정요인이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아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생활습관'으로 고쳐야 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질병 치료와 직접 연결되는 ④ 보건의료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라론드의 관점은 의료서비스 밖의 건강 결정요인을 강조하며 그중 생활습관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라론드와 건강 영향요인이 함께 나오면 네 요인을 생활습관·환경·인체생물학·보건의료조직으로 정리하고,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은 생활습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라론드의 건강장 네 요인 중 1순위는 생활습관이다.

NoteBase

4. <보기>의 보건지표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평균수명	㈏ 조사망률(보통사망률)
㈐ 비례사망지수	㈑ 영아사망률

① ㈎는 한 인구집단의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② ㈏는 국가 간 또는 지역사회 간 보건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③ ㈐가 크다는 것은 건강수준이 높고 장수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는 인구집단 연령구성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평균수명, 조사망률, 비례사망지수, 영아사망률의 정의와 보건지표로서의 특성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평균수명: 현재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연수이다.
조사망률: 일정 기간의 총사망자 수를 같은 기간의 연앙인구로 나눈 가장 기본적인 사망 수준 지표이지만, 인구의 연령구성에 크게 좌우된다.
비례사망지수: 전체 사망자 중 50세 이상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값이 클수록 조기사망이 적고 보건수준이 높으며 장수하는 인구가 많음을 뜻한다.
영아사망률: 연간 출생아 1,000명당 생후 1년 미만 사망자 수이다.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및 생활환경 수준에 민감한 대표적 보건지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평균수명은 인구집단의 사망 수준과 건강 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망 수준 지표'라는 표현은 틀리다. 가장 기본적인 사망 수준 지표는 조사망률이다.
② X — 조사망률은 연령구성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국가 간 또는 지역사회 간 보건수준을 그대로 비교하는 대표 지표로 쓰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연령구성의 차이를 보정한 연령표준화사망률 등을 사용하여 비교한다.
③ O — 비례사망지수가 크다는 것은 전체 사망 중 50세 이상 사망의 비중이 크다는 뜻이므로 조기사망이 상대적으로 적고 건강 수준이 높으며 장수하는 인구가 많음을 의미한다.
④ X — 영아사망률이 인구집단의 연령구성에 크게 좌우되어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는 부분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영아사망률은 연령구성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고 지역사회의 보건수준과 생활환경에 민감하여 지표로서 가치가 높다.

오답 포인트

①의 평균수명과 조사망률의 역할을 바꾸어 생각하거나, ②에서 조사망률의 계산이 단순하다는 이유로 집단 간 비교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쉽다. 또한 비례사망지수는 '사망'이라는 말 때문에 값이 클수록 나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 지수는 50세 이상 사망자의 비율이므로 클수록 보건수준이 높은 방향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표의 분자와 분모, 그리고 연령구성의 영향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전체 사망자 중 50세 이상 사망자의 비율인 비례사망지수는 클수록 좋은 지표이고, 조사망률은 연령구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집단 간 직접 비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조사망률은 기본 지표이지만 비교에는 약하고, 비례사망지수는 클수록 좋으며, 영아사망률은 지역사회 보건수준에 민감하다.

NoteBase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예방접종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A형간염
② 인플루엔자
③ 장출혈성 대장균
④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범위를 묻는다. 핵심은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것과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열거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필수예방접종 = 법이 정한 질병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예방접종이다.

핵심 구분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은 A형간염,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명시한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감염병이지만 이 조항의 필수예방접종 대상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A형간염은 법 제24조제1항에 열거된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이다.
② O — 인플루엔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열거된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이다.
③ X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법 제24조제1항의 필수예방접종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다. 틀린 표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이다. 올바른 표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법 제24조제1항의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O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법 제24조제1항에 열거된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이다.

오답 포인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법정 감염병이라는 사실만 보고 필수예방접종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함정이다. '감염병'과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범위는 같지 않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질문의 부정형 표현을 확인한 뒤, 각 질병이 단순한 감염병인지 법 제24조제1항의 필수예방접종 목록에 실제로 열거된 질병인지를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A형간염·인플루엔자·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은 필수예방접종 대상이고,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그 목록 밖이다.

NoteBase

6. <보기>에서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ㄴ. 현재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ㄷ. 가입자와 수혜자가 상이한 보험이다.
ㄹ. 산재보험은 소득보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① ㄴ,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담 주체, 적용 범위,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의 관계, 소득보장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고용보험의 보험료 분담 방식과 산재보험의 사업주 부담 방식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이며, 수급권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일반적인 근로자 사용 사업에서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이고, 재해근로자나 유족 등이 수급권자가 된다.

핵심 구분

ㄱ X: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 않는다.
ㄴ O: 법정 제외사업을 제외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일반적인 당연적용 원칙은 옳다.
ㄷ O: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이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재해근로자나 유족 등이므로 가입자와 수혜자가 다르다.
ㄹ X: 산재보험은 요양급여뿐 아니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급여도 제공하므로 소득보장을 포함한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3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36조에 따라 판단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ㄴ과 ㄷ은 모두 옳고, ㄱ과 ㄹ은 모두 틀리므로 옳은 설명만 고른 조합이다.

② X
-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고, 옳은 ㄷ이 빠져 있다. 산재보험에는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소득보장 급여가 포함된다.
- 틀린 표현: ㄹ
- 올바른 표현: ㄴ, ㄷ

③ X
- ㄷ만 옳다. ㄱ은 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한 점이 틀리고, ㄹ은 소득보장 기능을 부정한 점이 틀리며, 옳은 ㄴ도 빠져 있다.
- 틀린 표현: ㄱ, ㄹ
- 올바른 표현: ㄴ, ㄷ

④ X
- ㄴ과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산재보험은 치료 보장과 함께 재해로 인한 임금·소득 상실도 보전한다.
- 틀린 표현: ㄹ
- 올바른 표현: ㄴ, ㄷ

오답 포인트

ㄱ의 '절반씩 부담'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 분담과 혼동하기 쉬운 표현이다. 또한 ㄹ은 산재보험을 치료비 지급 제도로만 좁게 보게 만드는 함정이다. 산재보험에는 치료 관련 급여와 소득보장 급여가 함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산재보험 문제에서는 먼저 '보험가입자·보험료 부담자는 사업주, 수급권자는 재해근로자·유족 등'이라는 주체 구분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원칙이라는 점과 법정 제외사업이 있다는 점을 구별하고, 보험급여에는 치료 보장과 소득보장이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부담하고, 재해근로자와 유족을 치료·소득 양면에서 보장한다.

NoteBase

7. 레벨과 클라크(Leavell & Clark)가 제시한 질병의 자연사의 단계와 예방조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① 비 병원성기(1단계) – 재활 및 사회복귀
② 초기 병원성기(2단계) – 건강증진, 위생 개선
③ 불현성 감염기(3단계) – 조기진단 및 검진
④ 발현성 감염기(4단계) – 예방접종, 영양관리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레벨과 클라크가 구분한 질병의 자연사 단계에 각 단계의 예방조치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1단계 비병원성기: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개선을 시행한다.
2단계 초기 병원성기: 예방접종 등 특수예방으로 질병 발생을 막는다.
3단계 불현성 감염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시기에 검진과 조기진단·조기치료를 시행한다.
4단계 발현성 감염기: 질병의 악화와 장애를 제한한다.
5단계 회복기: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 재활 및 사회복귀는 1단계 비병원성기가 아니라 5단계 회복기의 조치이다. 1단계에는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개선을 연결한다.
② X — 건강증진과 위생 개선은 2단계 초기 병원성기가 아니라 1단계 비병원성기의 조치이다. 2단계에는 예방접종과 같은 특수예방을 연결한다.
③ O — 3단계 불현성 감염기에는 아직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검진으로 질병을 찾아 조기진단·조기치료를 시행한다.
④ X — 예방접종과 영양관리는 4단계 발현성 감염기의 조치가 아니다. 예방접종 등 특수예방은 2단계에 해당하고, 4단계에는 악화 방지와 장애 제한을 연결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예방조치 자체는 모두 익숙하지만 시행 시점을 서로 바꾸어 놓은 것이 함정이다. 특히 ①의 '재활'은 질병 발생 전 조치가 아니라 회복기에 시행하며, ④의 '예방접종'은 증상 발현 뒤가 아니라 그 전에 시행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질병 발생 전에는 건강증진·특수예방, 잠복하여 발견 가능한 때에는 조기진단, 증상 발현 뒤에는 악화·장애 제한, 회복기에는 재활이라는 시간 순서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건강증진 → 특수예방 → 조기진단 → 장애 제한 → 재활의 순서이다.

NoteBase

8. <보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병원체가 일으키는 감염병은?

<보기>

- 병원체 중 가장 작아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다.
-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번식하므로 세포 내 병원체라고도 한다.
- 항생물질과 설파제에 저항한다.

① 칸디다증 ② 발진티푸스
③ 디프테리아 ④ 인플루엔자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고,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증식하며, 항생물질과 설파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병원체가 바이러스임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바이러스: 세포 구조가 없는 매우 작은 감염성 병원체로, 숙주 세포의 대사 체계를 이용해야만 증식할 수 있다.
일반적인 항생물질과 설파제는 세균의 구조나 대사 과정을 표적으로 하므로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다.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세포 내 증식·항생제 무효가 핵심이고, 세균과 진균은 세포성 병원체이므로 광학현미경 관찰과 독립적인 증식이 가능하다. 리케차는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 증식하지만 항생물질에 감수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이러스와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칸디다증의 원인체는 칸디다속 진균이다. 진균은 세포 구조를 가지며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고 출아 등의 방식으로 증식하므로 보기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칸디다증은 진균에 의해 발생한다'이다.

② X
발진티푸스의 원인체는 리케차인 Rickettsia prowazekii이다. 리케차는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증식한다는 점은 바이러스와 비슷하지만, 테트라사이클린계 등의 항생물질에 감수성이 있으므로 보기의 '항생물질에 저항한다'는 특징과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발진티푸스의 병원체는 세포 내 증식이 필요하지만 항생물질로 치료할 수 있는 리케차이다'이다.

③ X
디프테리아의 원인체는 세균인 Corynebacterium diphtheriae이다. 세균은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고 세포 밖에서도 증식할 수 있으며 적절한 항생물질의 영향을 받으므로 보기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디프테리아는 세균에 의해 발생한다'이다.

④ O
인플루엔자의 원인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는 매우 작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며, 살아 있는 숙주 세포 안에서만 증식하고, 세균을 표적으로 하는 항생물질과 설파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보기의 세 특징을 모두 만족한다.

오답 포인트

② 발진티푸스의 리케차도 세포 내에서만 증식하므로 바이러스처럼 보이는 것이 함정이다. 그러나 리케차는 세균과 유사한 세포성 병원체로 항생물질에 감수성이 있으므로, 보기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증식', '항생물질과 설파제 무효'가 함께 제시되면 바이러스로 판단한다. 세포 내 증식이라는 한 조건만 보고 리케차를 고르지 않고 항생물질 감수성까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 숙주 세포 의존, 항생제 무효이다. 리케차는 세포 내 증식이 필요하지만 항생제는 유효하다.

NoteBase

9. 비말 전파 감염병으로만 묶인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풍진, 결핵, 홍역, 소아마비, 인플루엔자
② 풍진, 결핵, 홍역, 수두, 파상풍
③ 풍진, 결핵, 홍역, 수두, 콜레라
④ 풍진, 결핵, 홍역, 감기, 발진열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감염병의 주된 전파경로를 구분하여 비말 전파 감염병만으로 이루어진 묶음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말 전파는 감염자가 기침·재채기·말하기를 할 때 나온 호흡기 분비물의 비말을 통해 병원체가 전파되는 방식이다. 이 문항의 분류에서는 풍진·결핵·홍역·소아마비·인플루엔자를 비말 전파 감염병으로 묶는다. 반면 파상풍은 상처, 콜레라는 오염된 물·음식, 발진열은 벼룩과 같은 매개곤충을 통한 전파가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풍진, 결핵, 홍역, 소아마비, 인플루엔자는 이 문항의 감염병 전파경로 분류에서 모두 비말 전파 감염병에 해당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수두, 파상풍'이다. 수두는 공기 전파와 직접 접촉도 중요하며, 파상풍은 상처를 통해 균의 아포가 침입하여 발생하므로 비말 전파 감염병만의 묶음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수두, 파상풍'을 '소아마비, 인플루엔자'로 바꾸면 ①과 같은 비말 전파 감염병 묶음이 된다.
③ X — 틀린 표현은 '수두, 콜레라'이다. 수두는 공기 전파와 직접 접촉도 중요하고, 콜레라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에 의한 분변-경구 전파가 핵심이므로 비말 전파 감염병만의 묶음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수두, 콜레라'를 '소아마비, 인플루엔자'로 바꾼다.
④ X — 틀린 표현은 '발진열'이다. 발진열은 벼룩과 같은 매개곤충을 통해 전파되므로 비말 전파 감염병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발진열'을 '인플루엔자'와 같은 비말 전파 감염병으로 바꾼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의 수두를 호흡기 증상만 보고 비말 전파로 단순화하거나, ④의 감기 때문에 선지 전체를 맞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으로만 묶인 것'이라는 표현에서는 한 질병이라도 다른 주된 전파경로에 해당하면 그 선지를 제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에서 비말 전파가 아닌 질병을 먼저 찾는다. 상처 감염인 파상풍, 수인성·분변-경구 감염인 콜레라, 매개곤충 감염인 발진열이 포함된 선지는 바로 제외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파상풍은 상처, 콜레라는 물·음식, 발진열은 벼룩이 매개한다.

NoteBase

10. 이물질에 대항할 선천면역이 없을 때에는 인공상 적응을 시켜서 후천상 면역력이 형성되게 한다. 후천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연수동면역은 회복기 혈청, 면역 혈청, 감마 글로불린 등의 항체를 사람 또는 동물에게서 얻어 주사하는 것이다.
② 자연능동면역은 감염병에 감염되어 생기는 면역으로 실제 임상 증상을 나타내며 앓는 때뿐만 아니라 불현성 감염일 때에도 생긴다.
③ 인공수동면역은 태아가 모체의 태반을 통해 항체를 받거나 생후에 모유에서 항체를 얻는 방법으로 생후 차차 없어진다.
④ 인공능동면역은 이미 형성된 면역원을 체내에 주입하여 얻는 면역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후천면역을 자연·인공과 능동·수동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능동면역은 항원이 들어온 뒤 자신의 면역계가 항체와 면역기억을 형성하는 면역이고, 수동면역은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전달받는 면역이다.
자연능동면역은 감염 후 형성되고, 인공능동면역은 예방접종으로 형성된다. 자연수동면역은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 모체의 항체를 받는 것이고, 인공수동면역은 면역혈청이나 감마글로불린 등으로 항체를 투여받는 것이다.
능동면역은 형성에 시간이 걸리지만 비교적 오래 지속되고, 수동면역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만 비교적 짧게 지속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회복기 혈청, 면역혈청, 감마글로불린 등에서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얻어 주사하는 것은 자연수동면역이 아니라 인공수동면역이다. 틀린 표현인 '자연수동면역'은 '인공수동면역'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감염병에 걸린 뒤 자신의 면역계가 항체와 면역기억을 형성하므로 자연능동면역에 해당한다. 실제 임상 증상이 나타난 현성감염뿐 아니라 증상이 없는 불현성감염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③ X
태반을 통해 모체 항체를 받거나 출생 후 모유로 항체를 얻는 것은 자연수동면역이라는 설명은 맞지만, 이 면역이 생후 차차 '없어진다'는 내용이므로 인공수동면역이라고 한 첫 표현이 틀렸다. '인공수동면역'은 '자연수동면역'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면역원인 항원을 체내에 투여하여 자신의 면역계가 항체와 면역기억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인공능동면역이 맞다. 그러나 인공능동면역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오래 지속되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부분이 틀렸다.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투여받아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만 비교적 짧게 지속되는 면역은 인공수동면역이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③은 항체를 외부에서 받는다는 공통점 때문에 자연수동면역과 인공수동면역을 뒤바꿔 놓았다. ④는 '인공'이라는 말만 같을 뿐, 항원을 넣어 스스로 항체를 만드는 능동면역과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넣는 수동면역을 혼동하게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스스로 항체를 만들면 능동, 완성된 항체를 받으면 수동으로 나눈다. 그다음 감염·태반·모유처럼 자연 과정이면 자연, 예방접종·혈청·감마글로불린처럼 의도적으로 투여하면 인공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감염은 자연능동, 백신은 인공능동, 태반·모유는 자연수동, 혈청·감마글로불린은 인공수동이다.

NoteBase

11.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정신적 효율을 증진하는 활동인 공중보건의 분야와 그 내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① 환경 보건 분야 – 보건 영양
② 질병 관리 분야 – 감염병 관리
③ 보건 관리 분야 – 산업 보건
④ 의료보장 제도 분야 – 보건 통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공중보건 활동의 각 분야와 그 세부 내용을 올바르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환경보건 분야는 생활·작업 환경의 유해 요인을 관리하며 환경위생, 식품위생, 산업보건 등이 해당한다.
질병관리 분야는 질병의 발생과 유행을 예방·통제하며 역학, 감염병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이 해당한다.
보건관리 분야는 보건사업을 계획·운영·평가하는 데 필요한 보건행정, 보건통계, 보건교육, 보건영양 등을 다룬다.
의료보장제도 분야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가 필요할 때 경제적 부담을 보장하는 사회보장·건강보험 등의 제도를 다룬다.

선지별 해설

① X — 보건영양은 환경보건 분야가 아니라 보건관리 분야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환경보건 분야—환경위생·식품위생·산업보건 등'이다.
② O — 감염병 관리는 감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예방·통제하는 활동이므로 질병관리 분야에 해당한다.
③ X — 산업보건은 보건관리 분야가 아니라 작업환경과 직업성 유해 요인을 다루는 환경보건 분야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환경보건 분야—산업보건'이다.
④ X — 보건통계는 의료보장제도 분야가 아니라 보건사업의 기획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다루는 보건관리 분야에 해당한다. 올바르게는 '보건관리 분야—보건통계'이며, 의료보장제도 분야에는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등이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보건영양·산업보건·보건통계는 모두 건강과 관련되어 있어 분야가 혼동되기 쉽다. 특히 '산업'이라는 말만 보고 보건관리로 판단하면 안 되며, 산업보건은 작업환경의 유해 요인을 관리하므로 환경보건으로 분류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환경과 작업장의 유해 요인을 다루면 환경보건, 질병의 발생·전파를 막으면 질병관리, 보건사업의 운영과 자료를 다루면 보건관리, 의료비 부담을 제도로 보장하면 의료보장제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환경보건은 환경위생·산업보건, 질병관리는 감염병 관리, 보건관리는 보건영양·보건통계, 의료보장은 사회보장·건강보험이다.

NoteBase

12. <보기>와 관련 있는 대기오염 현상은?

<보기>

• 뮤즈계곡 사건 • 도노라 사건 • 런던스모그 사건

① 열섬 현상 ② 열대야 현상

③ 지구온난화 현상 ④ 기온역전 현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뮤즈계곡 사건, 도노라 사건, 런던스모그 사건의 공통 발생 조건인 기온역전 현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온역전 현상은 지표 부근의 찬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가 놓여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오르는 현상이다. 대기의 수직 혼합이 억제되어 지표 부근의 대기오염물질이 확산되지 못하고 축적될 수 있다. 뮤즈계곡 사건, 도노라 사건, 런던스모그 사건은 이러한 기온역전 조건에서 오염물질이 정체되어 피해가 커진 대표적 대기오염 사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열섬 현상은 도시의 기온이 주변 교외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다. 세 사건의 공통 원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며, 올바르게는 기온역전 현상이다.
② X — 열대야 현상은 밤의 최저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다. 세 사건에서 오염물질의 수직 확산을 막은 조건이 아니며, 올바르게는 기온역전 현상이다.
③ X — 지구온난화 현상은 온실가스 증가 등으로 지구의 평균기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세 사건의 직접적인 공통 발생 조건이 아니며, 올바르게는 기온역전 현상이다.
④ O — 기온역전이 생기면 상층의 따뜻한 공기가 뚜껑처럼 작용하여 지표 부근 오염물질의 수직 확산을 억제한다. 따라서 세 사건과 공통으로 관련된 현상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열섬과 ③의 지구온난화도 기온과 관련되므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문제의 세 사건은 단순한 기온 상승이 아니라 대기가 안정되어 오염물질이 지표 부근에 갇힌 상황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기오염 사건에서 무풍·안개·오염물질 정체·수직 확산 억제가 함께 제시되면, 찬 공기 위의 따뜻한 공기가 대류를 막는 기온역전 현상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뮤즈계곡·도노라·런던스모그의 공통 열쇠는 '역전층이 오염물질을 가둔다'이다.

NoteBase

13. 학교 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는 건강 사업을 제공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② 학교보건 대상인구는 전체 인구의 25% 정도로, 모자보건 대상인구보다 많다.
③ 지역사회 및 가족에게 간접적 보건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④ 지역사회에서 학교 교직원은 지도적 입장에 있고 지역주민과 접촉 기회가 많으므로 교직원을 통한 보건지식의 파급효과가 크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학교보건의 중요성을 대상인구의 규모, 보건사업 제공의 용이성, 가정·지역사회로의 파급효과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학교보건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학교라는 조직과 교육 환경을 활용하는 보건활동이다.
학교는 대상자가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있고 교육 조직이 갖추어져 있어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쉽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을 통해 건강지식과 건강행동이 가정 및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라는 일정한 조직 안에 모여 있으므로 건강검사, 보건교육, 질병 예방 등 건강사업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② X — 틀린 부분은 '모자보건 대상인구보다 많다'이다. 학교보건 대상인구를 전체 인구의 약 25% 정도로 보는 전통적 설명은 가능하지만, 임산부·영유아·여성 등을 포괄하는 모자보건 대상인구보다 많다고 할 수는 없다.
올바르게는 '학교보건 대상인구는 모자보건 대상인구보다 적다'이다.
③ O — 학생에게 실시한 보건교육은 생활습관과 건강지식을 통해 가족에게 전달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도 간접적인 보건교육 효과를 낼 수 있다.
④ O — 교직원은 지역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접촉할 기회도 많으므로, 교직원을 통한 보건지식의 파급효과가 크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전체 인구의 25% 정도'라는 앞부분 때문에 맞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정오를 가르는 핵심은 뒤의 '모자보건 대상인구보다 많다'라는 비교 표현이다. 비율에 관한 익숙한 문구와 대상집단 간 크기 비교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교보건의 중요성은 '집단 접근의 용이성, 교육을 통한 조기 건강습관 형성, 가정·지역사회로의 파급효과'로 판단한다. 대상인구 비교가 나오면 학교보건의 약 25%라는 표현만 보지 않고 모자보건처럼 더 넓은 대상집단과의 대소관계까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학교보건은 모이기 쉬워 사업이 쉽고, 학생·교직원을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로 퍼진다. 학교보건 대상은 모자보건 대상보다 크지 않다.

NoteBase

14. 세균성 식중독 중 독소형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잠복기가 길다.
② 가열에 의해 예방이 가능하다.
③ 균이 사멸하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세균이 증가할 때 발생하는 체외 독소가 소화계에 작용하여 일어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독소형 식중독은 살아 있는 세균 자체가 아니라 식품 속에서 미리 만들어진 독소를 섭취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소형 식중독: 세균이 식품에서 증식하면서 만든 체외독소를 사람이 섭취하여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이미 만들어진 독소가 주된 원인이므로 일반적으로 잠복기가 짧고, 세균이 사멸해도 독소가 남아 있으면 발병할 수 있다.
감염형 식중독: 살아 있는 병원성 세균을 섭취한 뒤 장관에서 증식하거나 침입하여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잠복기가 길다'이다. 독소형은 식품에 이미 형성된 독소가 섭취 직후 작용하므로 일반적으로 잠복기가 짧다.
② X — 틀린 표현은 '가열에 의해 예방이 가능하다'이다. 가열로 세균을 죽이더라도 이미 생성된 내열성 독소는 남을 수 있으므로 가열만으로 항상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르게는 식품에서 세균이 증식하여 독소를 만들지 못하도록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균이 사멸하면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다'이다. 독소형은 세균의 생존 여부보다 이미 생성된 독소의 잔존 여부가 중요하므로, 균이 사멸해도 독소가 남아 있으면 발생할 수 있다.
④ O — 세균이 식품에서 증식할 때 만들어 낸 체외독소가 섭취된 뒤 소화계에 작용하여 증상을 일으키므로 독소형 식중독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③은 '세균을 죽이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유도한다. 독소형에서는 세균 자체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독소가 발병 원인이므로, 균의 사멸과 독소의 제거를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서 '식품에서 미리 생성된 체외독소', '짧은 잠복기', '균이 사멸해도 발병 가능'이 제시되면 독소형 식중독으로 판단한다. 반대로 살아 있는 균의 섭취와 장관 내 증식이 중심이면 감염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독소형은 '균보다 미리 만들어진 독소', 감염형은 '살아 있는 균의 장내 증식'이다.

NoteBase

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병원체의 감염경로가 식품에서 입으로 이루어지는 감염병이다.
㈏ 사람과 가축 양쪽에 이환되는 감염병이다.
㈐ 어패류에 의한 기생충 질환이다.

① ㈎의 경우 세균에 의한 것은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등이 있다.
② ㈎는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항상 온도가 높은 여름에 발생한다.
③ ㈏의 경우 세균성 질병으로는 결핵, 탄저, 브루셀라병 등이 있다.
④ ㈐의 경우 폐흡충(폐디스토마)의 제1중간숙주는 쇠우렁이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감염경로에 따른 감염병의 분류와 각 감염병의 병원체·발생 양상·중간숙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 경구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입으로 섭취하여 감염되는 질환이다. 세균성 질환에는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등이 있다.
(나) 인수공통감염병: 사람과 동물 사이에 자연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결핵, 탄저, 브루셀라병 등이 해당한다.
(다) 어패류 매개 기생충 질환: 감염형 유충을 지닌 어패류를 날것 또는 덜 익혀 먹을 때 감염되는 기생충 질환이다. 폐흡충은 다슬기를 제1중간숙주로, 민물게나 가재를 제2중간숙주로 이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유행성출혈열'이 세균에 의한 (가)의 사례라는 부분이 틀리다. 유행성출혈열은 바이러스성 인수공통감염병이며, 세균성 경구감염병의 사례로는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등이 있다.
② X — '산발적으로 발생하며 항상 온도가 높은 여름에 발생한다'는 표현이 틀리다. 경구감염병은 공통 오염원에 의해 집단발생할 수 있고 여름철에 증가하기 쉽지만, 항상 여름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③ O — 결핵, 탄저, 브루셀라병은 모두 세균이 원인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인수공통감염병이다.
④ X — '폐흡충의 제1중간숙주는 쇠우렁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폐흡충의 제1중간숙주는 다슬기이고, 제2중간숙주는 민물게나 가재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감염경로와 병원체 종류를 한꺼번에 섞어 판단하거나, 간흡충과 폐흡충의 중간숙주를 바꾸어 기억하기 쉽다. 특히 ①은 장티푸스가 맞는 사례이므로 함께 제시된 유행성출혈열까지 맞다고 판단하기 쉽고, ④는 쇠우렁이와 다슬기를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가)~(다)의 분류 기준을 감염경로로 확정한 뒤, 각 선지에서 병원체 종류, 발생 양상, 숙주 관계를 따로 대조한다. '항상'처럼 범위를 지나치게 단정하는 표현과 제1·제2중간숙주의 순서를 특히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경구감염은 오염된 물·음식, 인수공통감염은 사람·동물 공유, 폐흡충은 다슬기 → 민물게·가재 순서이다.

NoteBase

16.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건지표는?

<보기>

- 분모는 0~14세의 유년인구이다.
- 분자는 65세 이상의 노년인구이다.
- 저출산 및 고령화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료이다.

① 총부양비 ② 유년부양비
③ 노년부양비 ④ 노령화지수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분자와 분모의 연령집단을 보고 부양비와 노령화지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유소년인구와 노년인구의 합을 나타낸다.
유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유소년인구(0~14세)를,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년인구(65세 이상)를 나타낸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노년인구(65세 이상)를 나타내므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함께 파악하는 지표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총부양비의 분모는 유소년인구가 아니라 생산연령인구이다. 틀린 표현은 '분모가 0~14세의 유년인구'라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유소년인구와 노년인구의 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② X — 유년부양비는 노년인구를 분자로 사용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분자가 65세 이상의 노년인구'라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유소년인구를 분자로 하고 생산연령인구를 분모로 하는 지표이다.
③ X — 노년부양비는 노년인구를 분자로 하지만 분모가 유소년인구가 아니라 생산연령인구이다. 틀린 표현은 '분모가 0~14세의 유년인구'라는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년인구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④ O — 노령화지수는 65세 이상 노년인구를 분자로, 0~14세 유소년인구를 분모로 한다. 따라서 저출산으로 유소년인구가 줄고 고령화로 노년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을 가장 잘 보여 준다.

오답 포인트

노년인구가 분자라는 점만 보고 노년부양비를 고르기 쉽다. 이 문항의 결정적 단서는 분모가 생산연령인구가 아니라 0~14세 유소년인구라는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모부터 확인한다. 분모가 생산연령인구이면 부양비이고, 분모가 유소년인구이면서 분자가 노년인구이면 노령화지수이다.

암기 포인트

부양비의 분모는 생산연령인구, 노령화지수의 분모는 유소년인구이다.

NoteBase

17. <보기>에서 설명하는 피임 방법은?

<보기>

-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다.
- 아기를 원할 경우 임신능력의 전환이 빠르다.
- 월경량 증가, 하복통, 요통, 질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다.

① 먹는 피임약
② 자궁내 장치(루프)
③ 피임패치
④ 살정제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고, 제거 후 임신 능력이 빠르게 회복되며, 월경량 증가·하복통·요통·질출혈이 나타날 수 있는 피임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궁내 장치(루프)는 자궁 안에 장치를 넣어 피임하는 방법이다. 특히 비호르몬성 자궁내 장치는 수정과 착상을 어렵게 하며, 제거하면 가임력이 빠르게 회복된다. 월경량 증가, 월경통이나 하복통, 부정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단서이다.
먹는 피임약과 피임패치는 호르몬을 이용하여 주로 배란을 억제하고, 살정제는 정자를 죽이거나 운동성을 떨어뜨리는 국소 피임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먹는 피임약은 주로 호르몬으로 배란을 억제하는 방법이므로, 월경량 증가와 하복통을 동반하는 자궁 내 장치라는 보기의 핵심 단서와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먹는 피임약'은 '자궁내 장치(루프)'로 고쳐야 한다.
② O — 자궁내 장치(루프)는 수정과 착상을 어렵게 하고, 제거 후 가임력이 빠르게 회복된다. 월경량 증가, 하복통·요통, 질출혈이 나타날 수 있어 보기의 설명과 일치한다.
③ X — 피임패치는 피부에 붙여 호르몬을 흡수시키고 주로 배란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자궁 안에 장치를 두어 착상을 방해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틀린 표현 '피임패치'는 '자궁내 장치(루프)'로 고쳐야 한다.
④ X — 살정제는 질 안에서 정자를 죽이거나 운동성을 떨어뜨려 수정 가능성을 낮추는 국소 피임법이다. 자궁 내 장치의 부작용인 월경량 증가·하복통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틀린 표현 '살정제'는 '자궁내 장치(루프)'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임신능력의 전환이 빠르다’는 단서만 보면 복용·사용 중단 후 가임력이 회복되는 다른 가역적 피임법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착상 방해’와 ‘월경량 증가·하복통·질출혈’을 함께 제시한 것이 자궁내 장치를 특정하는 결정적 조합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궁 안의 장치, 수정·착상 방해, 제거 후 빠른 가임력 회복, 월경량 증가와 골반 통증이 함께 나오면 자궁내 장치(루프)로 판단한다. 배란 억제는 호르몬 피임법, 정자 활동 억제는 살정제의 핵심 기준이다.

암기 포인트

루프는 자궁 안에서 수정·착상을 어렵게 하고, 제거하면 가임력은 빠르게 돌아오지만 월경량과 통증은 늘 수 있다.

NoteBase

18. 지역사회 간호사업 수행 시 가정방문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과 집단이 대상일 때는 개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신환자와 구환자 간에는 신환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급성질환과 만성질환 간에는 급성질환을 우선으로 한다.
④ 건강상 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건강한 대상자보다 우선으로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가정방문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대상의 파급효과와 건강문제의 긴급성을 어떻게 비교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정방문 우선순위는 한정된 인력과 시간을 건강상의 위험이 크고 신속한 개입이 필요한 대상에게 먼저 배분하는 기준이다. 대상 범위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고, 생애주기에서는 건강 취약성이 큰 신환자를 구환자보다 우선하며, 질환 상태에서는 급성질환을 만성질환보다 우선하고,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건강한 대상자보다 우선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개인을 우선으로 한다'이다. 개인과 집단을 비교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큰 집단을 개인보다 우선한다.
② O — 신환자는 건강 취약성이 크고 조기 관리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구환자보다 우선한다.
③ O — 급성질환은 상태 변화가 빠르고 즉각적인 관찰과 중재가 필요하므로 만성질환보다 우선한다.
④ O — 현재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는 간호 요구와 개입의 긴급성이 있으므로 건강한 대상자보다 우선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개인'이 구체적이고 긴급해 보인다는 인상에 끌리기 쉽다. 그러나 개인과 집단만을 비교하는 기준에서는 더 넓은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우선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교되는 두 대상 중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더 크거나 건강문제의 긴급성과 취약성이 더 높은 쪽을 우선 대상으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집단은 개인보다 먼저, 신환자는 구환자보다 먼저, 급성은 만성보다 먼저, 건강문제 대상자는 건강한 대상자보다 먼저이다.

NoteBase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3급감염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②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③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감염병

④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급별 분류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감염병을 신고 시기와 관리 방식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제3급감염병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다.

핵심 구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급은 즉시 신고와 높은 수준의 격리, 제2급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한 24시간 이내 신고와 격리, 제3급은 계속 감시를 위한 24시간 이내 신고, 제4급은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한 표본감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제2급과 제3급은 모두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지만, 제2급은 격리가 필요하고 제3급은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은 제2급감염병의 특징이며, 제2급감염병에는 격리도 필요하다.
틀린 표현: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올바른 표현: 제3급감염병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다.

② O
제3급감염병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다. 법률상 정의와 일치한다.

③ X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것은 제1급감염병의 특징이다. 제1급감염병은 발생 또는 유행 시 즉시 신고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틀린 표현: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올바른 표현: 제3급감염병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다.

④ X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것은 제4급감염병의 특징이다.
틀린 표현: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올바른 표현: 제3급감염병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다.

오답 포인트

①의 제2급과 ②의 제3급은 모두 24시간 이내 신고라는 공통점이 있어 혼동하기 쉽다. 제2급은 전파가능성과 격리, 제3급은 계속 감시가 핵심 표현이다. 또한 ③의 생물테러·높은 치명률·집단 발생 우려는 제1급, ④의 표본감시는 제4급에 대응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고 시기만 보지 않고 함께 제시된 관리 핵심어를 확인한다. '즉시·높은 수준의 격리'는 제1급, '24시간·격리'는 제2급, '24시간·계속 감시'는 제3급, '표본감시'는 제4급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1급은 즉시·고도격리, 2급은 24시간·격리, 3급은 24시간·계속 감시, 4급은 표본감시이다.

NoteBase

20.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한다.
③ 관할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한다.
④ 관할 시·도지사가 3년마다 수립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수립 주기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역할, 5년 주기와 매년 주기를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국가의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핵심 구분

「구강보건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반면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아니라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주체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내용은 법률의 규정과 일치한다.

② X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틀린 표현: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한다.
올바른 표현: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③ X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는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틀린 표현: 관할 시·도지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올바른 표현: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④ X
수립 주체와 주기가 모두 틀렸다. 기본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한다.
틀린 표현: 관할 시·도지사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올바른 표현: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5년을 3년으로 바꾼 주기 함정이고, ③과 ④는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바꾼 주체 함정이다. 특히 시·도지사의 세부계획 수립 역할을 기본계획 수립 역할로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구강보건사업 계획 문항에서는 먼저 계획의 종류를 확인한다. 기본계획이면 보건복지부장관·5년, 세부계획이면 시·도지사·매년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구강보건 기본계획은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시·도 세부계획은 매년이다.

NoteBase